



월간양계 창간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11월 4일(수) aT센터에서

본회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월간양계 창간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호(통권 481호)로 창간 40주년을 맞은 월간양계는 지난 40년간 양계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양계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

이번 40주년 행사에는 오봉국 초대 발행인을 비롯한 역대 발행인, 역대 편집장 등 원로들과 관련업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월간양계 창간 4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개최



오는 11월 4일 월간양계 창간 4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월간양계 창간 4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가 지난 9일 이준동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행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기념행사 책자 발간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였다.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기념책자는 과거 40년만을 회고하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40년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해 줄 것을 요

구하였다.

이날 추진위원으로는 오봉국 초대 발행인, 김영옥 초대편집장, 유상철 2대 편집장, 노영한 5,7대 편집장, 김용화 9대 편집장이 참석하였으며, 4일 행사의 사회는 김용화 국장(하림재단)이 맡기로 결정되었다.

SBS스페셜 방송에 반박, 성명서 발표

SBS는 지난 18일 SBS스페셜 '최악의 시나리오 - 잔혹한 상상, 바이러스의 습격' 편 방송을 통해 시와 신종플루의 결합이라는 황당한 가설을 기정사실인양 보도하여 양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본회는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박했다.

성명서에서 본회는 동 방송이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공식 명칭 대신에 조류독감이라는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공포를 더욱 자극했다며, "관련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학술적 근거도 없는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양계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하고, 천병철 교수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채란분과위원회

자조금 활성화와 지자체 지원 논의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는 지난 10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자조금 활성화와 난좌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자조금은 거출을 시작한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1억9천6백만원이 거출됐으며, 이 가운데 도계장을 통해 거출된 것은 34%에 불과해 여전히 도계장의 협조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조금 거출실적의 지역별 편차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 자조금에 참여하는 농가들 위주로 위생난좌 구입자금 2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타지역에서도 각 지부별로 도비 및 시군비를 적극 지원 요청하여 위생난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11월 10일 '종계·종란 납품계약 종계인 대토론회' 개최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평택 소재 가보호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종계분과는 오는 11월 10일 천안웨딩코리아에서 '종계·종란 납품계약 종계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종계·종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가 '종계·종란납품 계약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종계인의 종란납품형태의 계약방법과 계약형태의 합리적인 구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 학계, 농가 등이 참여해 종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수급전망, 타품목 마케팅보드 추진사례, 종계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최성갑 위원장은 계열업체에 납품하는 종란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가격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기점이 될 이번 대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관련일정 p152 참조)

육계분과위원회

불량병아리·사료 피해사례 접수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흥재)는 지난 10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불량병아리 피해사례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이를 근거로 해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흥재 위원장은 계열사에서 불량 병아리나 사료를 공급해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계열농가들은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병아리와

사료를 싸야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불량 원자재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계분과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육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93.3%였고, 공정하다는 의견은 6.7%에 불과했다. 병아리 품질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통(29.3%) 또는 나쁘다(56.7%)로 응답했으며, 좋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해, 불합리한 계약조건과 불량 병아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H&N, 로만 관계자 협회 방문



미국, 독일 육계육종회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본회를 방문, 양계업계 현안 및 시장조사차 방한중 본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한 관계자는 미국 H&N사의 리치웰을 비롯하여, 독일 로만사의 한스 프레드리히 핀스 이사와 로만 동남아 기술부장으로 있는 김영상 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양계업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의 수급상황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또한 독일의 AI발생으로 로만품종의 한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지만 상황이 호전돼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들은 로만에서 발행하는 플트

리 뉴스 월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김동진 편집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2기 대의원 선거 일정 확정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10월 7일 서울 소재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2기 자조금대의원 선거일정 및 선거구를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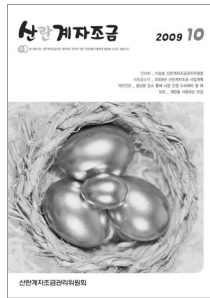
2기 대의원은 ▲경기 17명 ▲인천 1명 ▲강원 2명 ▲충북 6명 ▲충남 16명 ▲전북 15명 ▲전남 11명 ▲경북 7명 ▲경남 4명 ▲제주 1명 등 총 80명이다.

선거일정은 오는 11월 24일 경기·강원·인천을 시작으로 ▲충북·충남(대전 포함) 25일 ▲전북·전남(광주 포함) 26일 ▲경남(부산, 울산 포함)·경북(대구 포함)·제주가 27일 등 총 4일간 치러지게 된다.

이준동 위원장은 “육계계열사와 농가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들로 2기 대의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선거에 대한 육계 농가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소식지 발간**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사업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산란계자조금 소식지 발간을 시작했다. 10월 23일 첫 발간된 창간호에는 행사소식, 통계 및 시장상황, 계란 정보, 해외사례, 거출현황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가에 발송됐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1회 15일자로 발간되는 소식



지를 통해 자조금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며,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지회 · 지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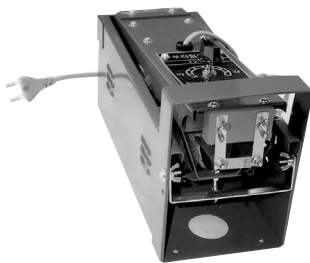
**대구경북도지회
사무장에 이상준 씨 발령**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송인환)는 지난 10월 1일 도지회 사무장으로 이상준 씨를 임명했다. 이상준 신임 사무장은 1973년 대구축협에 입사했으며, 1991년부터는 대구경북양계축협 전무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대구경북도지회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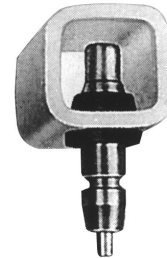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0-8934-6887